광주 남구 민주 우세속 무소속 변수

■ 7·28 재보선 후보군·판세 분석

이재오-장상 격돌 서울 은평을 빅매치

민주 6곳·한나라 2곳 이상 이겨야 승리

7·28 국회의원 재·보궐선거의 대진표가 대부분 짜여지면서 후보 간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.

이번 재·보선 지역은 당초 한나라당이 1곳(강원 원주), 민주당이 5곳(인천 계양을, 광주 남구, 강원 철원·화천·양구·인제, 태백·영월·평창·정선, 충북 충주), 창조한국당(서울 은평을)과 선진당(충남 천안) 각 1곳을 차지했던 곳.

따라서 정치권에서는 현재 민주당은 6곳 이상에서, 한나라당은 2곳 이상에서 이겨야 재·보선 전체 승리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.

◇**광주 남구**=민주당 장병완 전 기획예산처 장관과 민주노동당 오병윤 사무총장, 국민참여당 장우철 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의 대결에 어떤 무소속 후보가 나올지 주목되는 상황이다.

특히 민노당과 참여당의 후보 단일화 논의도 진행되고 있어, 이들의 단일화를 통한 반 민주당 전선도 형성될 지 관심이다.

현재 민주당에서는 고재유 전 시장과 이윤정 민주당 남구 지역위원장이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. 민주당의 승리가 예상되지만 전통적인 무소속 강세지역이어서 변수는 남아 있다.

◇**서울 은평을**=한나라당 친이(친이명박)계 좌장인 이재오 전 국민권익위원장과 김대중 정부 때 총리로 지명됐던 장 상 민주당 최고위원 간 대결 구도가 됐다.

유권자 절반 이상이 호남·충청 출신이라는 점에서 한나라당에게 쉽지 않은 지역이지만, 이 지역에서 3선을 했던 이 전 위원장에 대한 '동정론'도 만만치 않아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. 야권 후보단일화가 승부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.

◇**인천 계양을**=한나라당 이상권 전 인천지검 부장검사, 민주당 김희갑 전 국무총리실 정무수석, 민노당 박인숙 전 최고위원이 각각 후보로 나섰다.

송영길 인천시장을 배출한 곳이라는 점에서 민주당 우위가 점쳐지지만 이 전 부장검사가 17, 18대 총선에서도 이곳에 출마했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대결이 될 것으로 보인다.

◇**충청 2곳**=충남 천안을에서는 한나라당 김호연 전 빙그레 대표이사와 민주당 박완주 지역위원장, 자유선진당 박중현 비뇨기과 원장 간 대결이 펼쳐진다. 천안이 한화와 빙그레의 텃밭인데다 김 후보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동생이어서 한나라당 우세가 예상되지만 민주당의 안희정 충남지사가 당선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어 점치기가 쉽지 않다.

충북 충주에선 윤진식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나라당 후보로 나섰고, 민주당에서는 정기영 전 시당위원장이 11일 후보로 확정됐다. 인물론에서는 윤 전 실장이 유리하지만 이곳이 충북지사로 당선된 민주당 이시종 전 의원의 지역구여서 섣부른 예상이 어려운 상황이다.

◇**강원 3곳**=원주에선 이인섭 전 강원도의원(한나라당)과 박우순 변호사(민주당), 이광재 지사의 지역구였던 태백·영월·평창·정선에선 염동열 전 석탄공사 감사(한나라당)와 최종원 전 연극협회 이사장(민주당)이 맞붙는다. 철원·화천·양구·인제는 한나라당 한기호 전 육군 5군단장과 민주당 정만호 전 청와대 비서관, 민주노동당 박승흡 전 대변인이 경쟁한다.

어느 당도 쉽게 우세를 점치기 힘든 지역이어서 피말리는 접전이 예상된다. /박지경·최권일기자 jkpark@

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11일 천안 성환시장을 방문해 7·28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민주당 박완주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고 있다. /연합뉴스

"교육·문화·복지 숨쉬는 남구 만들것"

광주 남구 보선 민주당 장병완 후보

"광주 남구를 교육, 문화, 복지가 살아 숨 쉬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은 물론 이명박 정부 들어 위기 국면에 놓인 광주·전남의 미래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"

민주당 광주 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확정된 장병완 전 기획예산처 장관은 10일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"민주당의 공천을 받았지만 이는 곧 남구 지역민과 광주시민의 공천이라고 생각한다"며 이렇게 말했다. 다음은 일문일답.

-민주당 남구 보궐선거 후보군으로는 뒤늦게 거론됐다.

▲지난 4월 호남대 총장을 연임하게 되면서 보궐선거 출마를 놓고 고민이 있었다. 하지만 지역민의 성원으로 성장한 사람으로서 이명박 정부의 오만과 독선에 따른 호남의 위기 상황을 그대로 지켜볼 수 없었다.

-남구 보궐선거에 나서게 된 배경은.

▲광주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권유가 있었다. 여기에 민주당 측에서 재정 전문가가 필요하다며 남구 출마를 적극 권했다.

-당적 및 지역구 논란이 있다.

▲호남대 총장으로서 정당의 당적을 갖기 어려웠다. 또한, 광주를 각 지역구로 쪼개기 보다는 통으로 크게 봐야 한다.

-현 정국을 어떻게 보는가.

▲한 마디로 '시대의 역행'이라고 할 수 있다. 부자 감세와 고소영 인사, 4대강 사업 등 일방주의와 민주 및 인권의 후퇴 현상이 극명하다. 특히, 과거 군사정권의 호남 차별 시대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깊다. 중앙 부처의 광주·전남지역 인맥이 고사하고 광주·전남 기업들은 줄도산 사태를 맞고 있다.

-광주의 현안은 무엇이라 생각하나.

▲지속적이고 순환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. 이를 위해 R&D 특구를 중심으로 첨단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. 또한, 문화수도에 걸 맞는 콘텐츠 확보를 통해 문화산업을 광주의 성장 동력으로 키워야 한다.

-남구의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비전은.

▲재정이 파탄 상태다.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. 기획예산처 장관을 지낸 경험과 인맥을 총동원, 중앙 정부의 재정 지원을 이끌어 내겠다. 또한, 강운태 시장, 최영호 남구청장 등과 함께 남구를 교육, 문화, 복지가 살아 숨 쉬는 최고의 자치단체로 만들어 나가겠다.

/임동욱기자 tuim@kwangju.co.kr

이낙연·조영택 등 12명 '최우수'

박지원·김재균·김진애 등은 '우수'

민주 국회출석률 공개

이낙연·조영택·이윤석 의원이 국회 본회의, 상임위, 의원총회 등 '3대 회의'에 충실한 참석률을 보여 민주당 내에서 '최우수 의원'으로 선정됐다.

11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들을 포함 김영록·김영환·김유정·김춘진·김충조·박기춘·백재현·전현희·홍재형 의원 등 12명이 지난 5~6월 두달 동안 본회의 70% 이상, 의원총회 100%, 상임위 100%의 출석률을 기록, '최우수 의원'에 이름을 올렸다.

또한, 박지원 원내대표와 김재균·김진애·서종표·양승조·전혜숙 의원 등은 의원총회 90%, 본회의 70%, 상임위 80% 이상 참석한 것으로 나타나 '우수 의원'으로 선정됐다.

민주당의 최우수의원 및 우수의원 선정 제도는 박지원 원내대표의 아이디어로 채택됐다.

박 원내대표가 취임과 함께 '일하는 국회'와 '의정활동과 대안으로 평가받는 수권정당'의 면모를 확실히 하기 위해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스스로 경각심을 갖자며 도입한 것이다.

특히, 박 원내대표는 우수한 성적을 기록한 의원들에 대한 보상책으로 예결위원 자리 11석을 내걸은 상태다.

민주당 관계자는 "민주당 자체적으로 의정활동 및 당내 활동에 충실하자는 취지에서 도입한 제도인 만큼 상당한 효과가 기대된다"고 말했다.

/임동욱기자 tuim@kwangju.co.kr

민노당 새 대표에 이정희 의원 확정

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(41·비례대표·사진)이 신임 당 대표로 확정됐다.

민노당에 40대 대표가 배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.

전날 개표된 지도부 경선에서 1위를 차지한 이 의원은 과반득표에 실패, 결선을 남겨두고 있었으나 2위 득표자인 장원섭 후보가 지난 9일 후보직에서 사퇴, 대표직이 확정됐다.

이 의원의 당 대표 선출로 정치권의 세대교체 바람과 맞물려 민노당을 투쟁적 이미지의 이념정당에서 대중정당으로 변모시키기 위한 노선 변화 시도도 가속화될 전망이다. 민노당은 오는 16일께 대표 취임식을 가질 예정이다. /최권일기자 cki@

13~14일 후보 등록… 재보선 열전 돌입

7·28 국회의원 재·보궐선거가 이번주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열전에 돌입한다.

이번 재·보선은 수도권, 강원, 충청, 호남 등 8곳에서 치러져 6·2 지방선거 이후 전국의 민심의 흐름을 가늠해볼 계기라는 점에서 주목된다.

재보·선 지역은 ▲서울 은평을(재선거) ▲인천 계양을 ▲광주 남구 ▲강원 원주 ▲강원 태백·영월·평창·정선 ▲강원 철원·화천·양구·인제 ▲충북 충주 ▲충남 천안을(이상 보궐선거)이다.

후보자 등록은 오는 13~14일 해당 지역 선관위별로 실시되며, 공식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 마감 다음날인 15일부터 시작된다.

한나라당 조해진 대변인은 11일 "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잘 받들어 1~2곳이라도 승리한다면 의미있는 성과가 될 것"이라고 말했다.

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"이명박 정권이 6·2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국민의 인적쇄신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정운영 변화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'불통정권'이라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"며 "해볼 만한 선거"라고 말했다.

/박지경기자 jkpark@kwangju.co.kr